# 여래 법신은 영원한 바라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㉙ 바라밀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영원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뒤바뀐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여래의 법신은 곧 영원한 바라밀(波羅蜜)이며, 즐거운 바라밀이며, '나' 라는 바라밀이며, 깨끗한 바라밀인 까닭입니다. 부처님 법신을 이렇게 보는 이는 올바른 견해라 하며, 올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났으며, 바른 법에서 났으며, 법으로 교화하여 법의 재물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맑고 깨끗한 지혜란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지혜는 비록 깨끗한 지혜라고 말은 하지마는, 저 괴로움이 멸한 진실하고 완전한 법(滅諦)의 경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네 가지를 의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말하면, 삼승(三乘)을 처음 배우는 이는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고, 저 뜻을 마땅히 깨닫고 얻을 것이므로 그를 위하여서 세존께서 네 가지 의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의지한다는 것은 세간의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에 의지한다는 것은 일체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上上)이 되니, 이 가장 으뜸가는 제일의(第一義)가 바로 괴로움이 없어진 법(滅諦)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믿는 것은 그릇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열반 4덕(四德)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한 덕은 부처님 법신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법신을 이렇게 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다. 불자의 정의를 이 장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 바이기도 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나고 부처님 법에서 교화되어 태어난다."(從佛口生 從法化生)는 말이 강조되면서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인 제일의가 괴로움이 없어진 멸제(滅諦)이니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법신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또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바라밀로 표현하며 여래의 법신이 영원한 바라밀이라고 하였다. 바라밀이란 바라밀다를 줄인 말인데 완성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흔히 '저 언덕에 이른다' 는 도피안(到彼岸)으로 번역하는데, 모든 실천적인 수행 전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반야심경주해〉에 설명하기를 "중생이 지혜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을 차안(此岸)이라 하며 보살이 반야를 닦아 지혜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도달한 경지를 피안(彼岸)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어떤 곳에는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설명한 곳도 있다. 〈능가경주〉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 바라밀을 수행의 지위와 관련해서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유가론기〉에 의하면 보살의 수행 지위와 관련시켜 아직 초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바라밀이라고 하고, 초지(初地)에서 7지(七地)까지를 근바라밀(近波羅蜜)이라 하며 8지(八地) 이상을 대바라밀(大波羅蜜)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장(章)에서 설해진 말 가운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은 네 가지 열반 4덕을 의지하는  것은 세간의 법이라 하여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가 못 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최후의 완성된 열반의 경지인 제일의(第一義) 멸제(滅諦)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다. 수행이 완성된 최후의 경지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조사도 없다' 는 말이 있다. 불견(佛見), 법견(法見), 조견(祖見)이 남아 있으면 아직 완성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가(禪家)에서 오히려 자주 해온 말이다.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남이 있으면 이것이 상(相)이 되어 실제 부처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비록 말을 의지하지마는 이때는 의언진여(依言眞如)가 되어 이언진여(離言眞如)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염불로 팔십억겁 생사의 죄 소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㊷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염불(念佛) 수행을 하는 방법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 방법은 날짜를 정해 놓고 염불하는 '기일염불(期日念佛)' 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시간염불(時間念佛)' 그리고 천 번 만 번 수량을 정해 놓고 하는 '수량염불(數量念佛)' 수행 등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기일염불(期日念佛)은 정해 놓은 날짜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게으른 생각을 떨쳐내고 일념 염불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전과 논서에는 1일 염불로부터 시작하여 2일 염불,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21일, 49일, 100일 염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염불은 1일에서 100일 동안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날짜 정해놓고 하는 '기일염불'**
**시간 정해놓고 하는 '시간염불'**
**수량 정해놓고 하는 '수량염불'**
**실천 방법 충분히 익혀서 실천**

〈관무량수경소〉에서는 "일체 범부에게 권하여 하루나 7일간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면 결단코 왕생할 수 있다."라고 기일염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시간염불(時間念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뒤로 미루는 마음이 생겨나 염불 수행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 놓고 염불 수행을 하면 잠자는 시간에도 염불이 이어져 몽중일여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염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자 여러분! 하루에 108번, 천 번, 만 번, 십만 번 등 자기의 역량에 맞게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수량염불(數量念佛)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십념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생각 생각 가운데 팔십억겁 생사의 죄를 제거하느니라."고 하여 구족십념(具足十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 번을 채워야 하느니라." 하여 보살의 명호를 만 번 염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량염불은 마음을 전념하게 하는 좋은 방편으로서 잡념을 퇴치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에 대한 강한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는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익혀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에서 말했듯이 다시 말하면 염불(念佛)이란 의미 속에는 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佛)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자각각타 각행원만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㉘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3

# 막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흐르네

**"수행승들이여,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관찰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생성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세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네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뭇 삶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다. 뭇 삶은 그 위의 배다. 빠르게 흐르는 강물 위에 놓일 수도 있고, 느리게 흐르는 강물 위에 놓일 수도 있지만 흐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어찌 보면 마음대로 흐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도 같다. 그러나 그 배에는 키가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키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모아 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쌓이고 쌓여야 없는 키를 계속해서 찾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다. 그 전에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뱅뱅 돈다.

없는 것을 찾는 그 간절함이 마음에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스승은 풍선을 불어주지는 않는다. 스승은 바늘만 들고 있다. 풍선을 불어오기만 하면 바로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불지 않은 풍선을 가지고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풍선을 찔러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전하는 것은 없는데 찾는 마음은 버리지 못한다. 그 찾는 마음의 풍선이 가득 차 답답함에 빠진다.

그러다 물 흐르듯 흐름을 알아버린다. 이제 흐름을 막지 않고 잡지 않는다. 그것이 그 뜻이다. 다른 뜻이라는 것이 없다.

뭇 삶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궁구한다. 부처님은 단박에 말씀하신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 궁구하는 그놈이 바로 괴로움이라 바로 일러주신다.

참으로 쉬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듣는 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기꾼은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이다. 자기를 잡아 감옥에 보낼 생각은 꿈에도 없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임장을 회수할 때까지는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사대오온이 형성되어 있는 그 흐름을 역류시키지 않는 일이다. 잘 되는 일과 못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흐름을 또 역류시켜 버린다. 삶에 대해 항상 이런 역류에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넘어가버린다. 그리고 자신이 역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괴로워한다. 괜찮은 삶이나 괜찮지 않은 삶이나 잘된 일과 잘되지 못한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역류가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자신의 형성에 시비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에게는 오온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는 말이 사라진다. 그러면 생성되어 소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누구나 그 본연이 형성되어 있는데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고만 살았네.
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나니
그 형성력 그대로 불편함 없이 지내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일상,
미얀마 청년의 눈물

이주노동자 민팡씨 가족 위해 한국행…호흡곤란·기침 잦아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매일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